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7월 ~8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식량안보, 두바이, 할랄, 국경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5. 1. 14.
UAE, 식품안전 범죄자
에 대한 전쟁 선포

2016. 1. 6
새로운 식품 안전법
개정

2016. 8. 4.
비허가 물품 14톤
압수,폐기

2016. 8. 10.
UAE, 식품 검역 강화
논의

핵심이슈
도출

“아랍에미리트, 식품 검역 강화 논의”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아랍에미리트, 식품 검역 강화 논의

아랍에미리트의 기상환경청은 2016년 8월 10일 자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에 대해 엄격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밝혔다. 앞으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은 통관 시 필요한 서류와 인증을 제시해야 한다.

마제드 무하메드 나세르 식품안전부장은 국경에 전문적인 감시 도구와 인력을 보충해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슬람 율법에 허가되지 않은 재료를 포함한 식품을 판매하면 제재를 받으며, 특히 사료 제품의 생산자와 수입자는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편, 같은 달 허가 받지 않은 제품 14톤을 압수하는 등 아랍에미리트 식품 검역 당국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식품 검역 강화는 높은 식품 수입량에 의한 식량 안보 위협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2015년 두바이에서 세계식량안보회담(World Food Security Summit)을 개최하는 등 식량안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열악한 기후조건으로 농업의 발달이 어려우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자급 자족이 어려워져 현재 식품의 80퍼센트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리트 식량안전부는 식품의 안전이 식량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밝히며, 수입식품 검역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는 지속적으로 식량안보에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신제품 개발이나 재배방법 개선을 위해 해외투자에 적극적일 것이므로 공동참여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기존에 아랍에미리트로 수출을 진행 중이던 기업은 강화된 검역에 대비해 인증 내용과 서류를 점검해야 한다. 향후 수출을 계획 중인 기업은 금지된 성분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할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에서 할랄 인증이 의무는 아니나,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은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취득이 권장된다. 또한 아랍에미리트는 식품 표기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므로 제품 라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구체적인 법 개정이나 시행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아랍에미리트 표준화기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랍에미리트 식품안전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esma.gov.ae/en-us>)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